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2년도 표어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마5:13-16, 벰전2:11-12)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마 1:1-17)

Jesus who is called Christ (Matt. 1:1-17)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의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복음서를 잘 묵상하고 연구하면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4개의 복음서에는 각 권의 저자들이 밝히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메시아인 것을,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아들, 인자인 것을,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신 것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중점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16절).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세 가지의 직분,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는데 마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ll words in the Bible witness Jesus Christ. However, if we meditate and study the Gospel in which Jesus Christ’s deeds on the earth are preserved, we are able to understand Jesus well.

We can see that some aspects of Jesus Christ on which the authors wanted to state their view appear differently to one another. For example, Matthew expresses Jesus Christ as the King Messiah, Luke expresses Jesus Christ as a Son of man, Mark expresses Jesus Christ as a servant, and John reveals that Jesus Christ is God Himself.

“Jacob the father of Joseph, the husband of Mary, of whom was born Jesus, who is called Jesus Christ” (v. 16).

‘Christ’ refers to a person who was ordained, ‘Messiah’ in Hebrew. In the Old Testament, three duties of those who were ordained were a king, priest, and prophet. Here Matthew attributes all three duties to Jesus Christ as the ‘Messiah’.

1. 왕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길게 나열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유대인의 왕이 탄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분명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왕의 특징은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주만물과 인류 역사를 통치하십니다. 그 분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는 놀라운 평화와 안식과 승리가 보장됩니다.

2. 제사장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 제사를 통하여 죄를 빌어주고 용서받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되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3.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든, 심판에 관한 말씀이든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는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성전에서, 길이나 산이나 광야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셨던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벅찬 기쁨, 감출 길 없는 기쁨으로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 A King

Mathew begins listing the lengthy genealogy of Jesus Christ. This was so because the Jews knew that the Messiah, the Jewish King, is to come through the bloodline of Abraham and David. Matthew establishes that it is a fact that Jesus is truly the descendent through Abraham and David’s bloodline.

The trait of a King is to reign. Jesus reigns our life but also all things in the world and human history. The wonderful peace, rest, and victory are guaranteed by God to all of those who obey His reign, receive it with joy, and serve Jesus as King.

2. A Priest

The priest who approaches God with the sins of his people plays a role in helping them confess their sins and receive forgiveness. Our Jesus Christ came as a priest forever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in order to atone us from our sins.

Moreover, Jesus forgives our sins, while He delivers us from sins with His own blood, instead of an animal’s blood, He becomes a priest forever according to the order of Melchizedek.

3. A Prophet

It is a prophet who proclaims God’s words to the people. He must proclaim God’s word without making any adjustment whether it is about grace or judgment.

In this sense, Jesus is our prophet forever. Because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Jesus concentrated on the work of teaching during his public career. Jesus, who taught and proclaimed God’s word in the synagogue, in the temple, on the street, on the hills, and in the wildness, and anywhere He went, is a prophet forever.

My beloved Christians!

Who do you think Jesus is? He is Christ and the Son of the living God.

By praising Jesus Christ who came as a King, a Priest, and a Prophet with your loving heart and unconcealed joy, I earnestly hope that you will be blessed Christians.

2012년도 1/4분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

3월 25일(주일) 까지 사무국 제출

2012년도 1/4분기 섬김위원 추가 임명에 앞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봉사신청을 기다린다.

세례를 받은 등록 성도들은 모든 부서의 봉사가 가능하나 다만 교회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은 소정의 양

성과정을 수료한 성도들만 신청할 수 있다. 현재 2부 예배나 3부예배 전후 약30분씩 봉사할 차량관리부의 봉사자가 많이 부족한 상태니 특히 관심 있는 성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 제출은 3월 25일까지 사무국으로 하기 바란다.

한가족 · 한마음 축제 안내

올해에는 각 교구목사가 지도하는 교구 중심으로 개최

전교인이 함께 참여하던 한가족 · 한마음체육대회가 올해는 교구위원회(위원장 :임상현 장로) 지도하에 각 교구별로 진행하게 된다.

예년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체육중심으로 치루어진 전교인체육대회 행

사가 협소한 장소로 인한 불편함,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어려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참여종목의 한계 등으로 일부 한정된 성도들만의 잔치에 그쳤던 아쉬움이 있어 올해에는 각 교구목사가 지도하는 소속교구들 중심으로,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개최된다.

특히 그동안 교회행사에 잘 참여하지 못해 다소 외롭게 생활하시던 교구 내 어르신들이나 장년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교회학교 어린이, 대 · 청년부 젊은이들, 누구보다도 기존 성도들이 이름과 얼굴을 잘 알지 못하는 새가족들 모두가 한 분도 소외됨이 없이 참여하여 진정한 서울교회 한가족 됨의 기쁨을 맛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종목 역시 꼭 체육종목에 한정하지 않고 인근지역



2009년 한가족 · 한마음 체육대회

의 경치 좋은 장소로 가벼운 나들이를 하여 도시락을 나누어 먹으며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을 하는 등으로 다양화 하고 또 프로그램 역시 어린이가 많은 교구,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교구 등 각 교구식구들의 중심세대에 맞춘 적절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구 내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교제와 단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구들이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들을 중심으로 벌써 아가페타운, 베델하우스, 올림픽공원, 미사리조정경기장 등으로 장소를 확정하고 날짜도 5월 초부터 6월 초 사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택하여 준비 중이오니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바란다.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전도 동력 세미나

24일(토) 오후 4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

서울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오후 3시 경건회(박도철 목사님 설교)와 월례회를 마친후 전도 동력 세미나가 민경설 목사(대전신학대학교 총장)를 강사로 모신 가운데 24일(토) 오후 4시 30분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린다. 우리교회 전도위원회(위원장 노문환 장로)는 70인전도대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 힘을 얻어 전도에 힘쓰기를 부탁드린다.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3월 27일(화) 오후 7시 30분 101호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27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101호)에서 열린다. 이날 강의는 교육전문가 이영숙 박사(좋은나무 성품학교 대표, KBS, MBC, SBS 및 청와대 교육자문위원, Kosta강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교회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모두 참석할 수 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모두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 바란다. 교사들을 위한 저녁식사는 교회에서 준비된다.

제 2회 의료인의 밤

3월 31일(토) 오후 5시 801호

제 2회 의료인의 밤 행사가 3월 31일(토) 5시 801호에서 열린다. 지난 의료선교 사역을 결산하며 앞으로 진행될 사역에 대하여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며 박진아 목사의 설교를 통해 의료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된다. 대상은 서울교회에 등록된 모든 의료인(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방사선기사, 의대 및 간호대학생, 의료선교에 관심있는 성도)들이다. 관계된 성도들은 이 뜻깊은 자리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란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41]

(문 36) 성소나 성전에 아로새긴 장식품과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하신 제2계명과 어떤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까?

(답) :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출20:4)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예배)하지 말며 그것들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 (출20:5) 하셨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대상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제2계명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하심으로 예배의 방법을 말씀한 것입니다. 초자연적 또는 신적 존재로 물건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화가가 잘생긴 미남자를 그려 왔습니다. 코가 높고 눈과 머리가 갈색인 이 초상화 밑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면 나는 그 초상화의 인물이 아무리 잘생겼다 해도 내가 아닌 고로 내 이름을 지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무슨 형상을 세워놓고 주신 것 감사한다고 절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을 창조 주처럼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를 지을 때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라' (출25:18,20)고 하신 것은 그것들로 예배의 대상을 삼은 것이 아니므로 우상이 아니고 제2계명을 범한 것도 아닌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도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왕상6:29-32)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벽이나 문의 장식물은 예배의 대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장식품은 제2계명을 범하는 것도 계명과 상반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 서울교회 엘리베이터 - 이렇게 이용합시다

교통약자나 많이하신 어르신들과 휠체어 등의 신체보장구를 이용하는 성도와 영유아부 어린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양보합시다.

제2회 의료인의 밤

의료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박경정 집사 (치과의, 의료선교회장)

작년 4월, 서울교회 교우 중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과 의료선교에 관심있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가운데 제1회 서울교회 의료인의 밤을 개최한지 벌써 일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료인의 밤 이후 더욱 많은 분들이 의료선교회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셨고 여름 방글라데시 단기선교에 이어 작년 12월에는 우리 교회 파송선교사님이신 김종일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의정부 안디옥열방교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진료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3월 31일 토요일 제2회 의료인의 밤을 계획하고 기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우리교회 파송 의료선교사님이신 이재훈(마다가스카르),



박진영(방글라데시)선교사님들께 필요한 의료장비구입을 위한 기금조성과 2부 순서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의 저자인 박관태선교사님(외과의사)을 모시고 특강을 들을 예정입니다. 성도님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① 2009년 캄보디아에서의 의료선교
② 2010년 말라위 의료선교 현장에 몰려든 환자들
③ 말라위 환자들을 진료 중인 의료선교팀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 훈련병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

육군 제20기계화 보병사단 훈련병 진중세례식 및 성찬식을 우리교회 비전 2020위원회(위원장 이갑진 장로) 주관으로 3월 31일(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제20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샘물 군인교회 분당에서 실시한다. 출발은 교회에서 오전 11시에 한다.

비전 2020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화된 통일조국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진중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명 이상의 장병이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룩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2020년까지 전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의 75%인 37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시순절 기도

고난의 신비 알고자

윤숙희 권사 (6교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시순절에 고티다 가파른 언덕길
유월절 어린양 우리주님께서 묵묵히 지고가신
그토록 험한 십자가를 목상하면서 고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아돌로사!
무릎.무결하신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하여 죄악의 사슬에서
참 자유함을 얻었기에
저희들은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 주님!
까닭없이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존귀함을 얻었기에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합니다.
가시관에 찢려 흘러내린 이마위의 핏방울과
창에 찢려 쏟아진 뱀혈로 인하여
주홍같은 저희들의 죄악이
흰눈처럼 변하였기에
더더욱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오 주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또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며
살아가는 무지막지한 인생들입니다.
비운뒤 독버섯처럼 자꾸만 돌아나는
시기와 질투, 교만한 마음,
이생의 자랑, 무한한 욕망,
온갖 죄악의 쓴 뿌리들을 이 시순절에
십자가 밑에 다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가겠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갈보리 산위에 우뚝선 영광스런 십자가만을
영원히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가족 · 한마음 축제를 준비하며



양춘경 집사(1교구)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는 매년 봄 가까운 숲 속에서 야외예배를 드렸습니다. 야외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해도 빠짐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오묘하심을 보고 감탄하곤 했습니다. 아! 참 좋다. 참! 아름답다. 탄성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 기억이 생생합니다.

교구 별로 한가족 · 한마음 축제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교구 목사님, 교구 장로님과 부교구장, 간사(2) 다섯 분이 먼저 기도 모임을 갖고 장소와 날짜를 정하였습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날짜는 5월 12일(토)로 정하였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귀뺨을 스치는데도 현장답사를 다녀오면서 5월의 푸르름을 머



92년 삼척산업대학에서 열린 전교인 수련회 - 한가족 · 한마음 축제의 호시가 되었다

한가족 한마음 축제

릿속에 그려보며 나도 모르게 소년시절 야외예배의 장면들이 생생한 기억으로 되살아났고 그때의 추억들이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구장님께서 1교구의 희망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생들이 이날 하루만큼은 정녕코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집사님들과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방송곡에 근무하는 진교남 집사님께서 진행을 맡아 유명MC와 함께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1교구, 16교구가 연합하여 한가족 · 한마음 잔치를 합니다. 사랑의 마음 꽃을 한껏 피워 보겠습니다. 교구 식구 모두가 동참하여 이 사랑의 마음 흡족히

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자연속에서 마음껏 느끼며 찬양과 감사로 행복하고 즐거운 이 잔치날에 1교구, 16교구 식구들의 많은 참석을 기대합니다.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3월20일(화) 북한구원(Save N.K) 확대 이사회를 소집한다. 3월21일(수) 한국로잔위원회 월례회에 참여한다. 3월23일(금) 한장총 총회100주년기념 사신전 4차회의를 소집한다. 한장총 일교단 다체제 헌법시안위원회를 소집한다.

■ 오페라 공연:신모란 성도(청년부, 15교구) 국립달오름극장-극장이야기-울엄마만세, 23일(금)오후7시30분

■ 이전개업 : 14교구 이계홍 집사 '초원의 집' 3월24일(토) 오전11시 개업감사예배(010-2653-1100)

■ 특남: 3교구 김지훈 성도 전선경 성도

■ 주간식당봉사: 이삭선교회(3.18) 도르가전도회(3.25)

■ 금주의 식사 : 황광목사 이성혜 사모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94년 잠실 종합운동장 보조 경기장에서 열린 제2회 한가족 · 한마음 축제

가져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 안수집사들께서 준비한 프로그램과 집사, 권사님께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장로님과 집행부에서 준비한 풍성한 기념품 등, 섬기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기울인 한가족, 한마음 잔치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창조주 하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필사 : 8교구 김광욱 집사, 9교구 유신 집사 12교구 주영도 집사
- 1독 : 3교구 윤운 권사, 5교구 최미아 권사 이관모 권사 김혜연 집사, 6교구 황보추자 권사, 9교구 이남성 집사 유신 집사, 조상희 권사 14교구 임진호 학생(사랑부)
- 2독 : 6교구 김숙자 권사, 유을상 집사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

신은영 조성배(김성자) 이진명(최영희) 조성경 강주은 강민선 우현주 우선영



(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한 제28회 군종목사 후보생 수련회가 우리교회 후원으로 3월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3일간 열렸다. 우리교회 담임 박노철 목사가 설교를 하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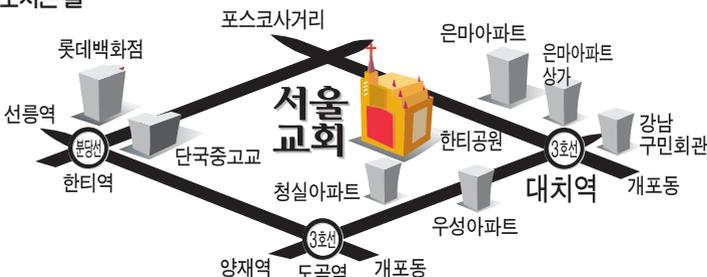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깊은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2. 의료선교팀의 헌신적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얻을 수 있도록
3. 강남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모임을 통해 구령의 열정이 살아나며 강남구의 복음화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